

# 雜草防除 技術普及의 現況과 問題點

李相奭\* · 田泰河\*

## Extension Service in Weed and Herbicide Technology

Lee, S.S.\* and T.H. Chun\*

世界 各處에서 開催되고 있는 어떤 種類의 Plant Protection Conference 에 參席해 보더라도 雜草問題나 除草劑의 比重이 엄청나게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農村振興廳 作物保護課에서는 이제까지 病理·害蟲防除技術의 普及에만 重要된 業務를 遂行해 오고 있어서 엄청난 視差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植物保護의 領域內에서 雜草管理가 차지하는 比重과 現實性에 대한 認識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또는 農村振興廳內의 技術指導普及을 맡은 여러 課들이 제각각 이들 業務를 分擔하여 遂行해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問題로 提起코져 하는 것은, 이런 體系로 現時의 要求와 問題分量을 克服 體系의이고 效率의으로 遂行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즉 나름대로 이 分野에 관해서도 基本 業務를 並行해 가며 遂行해 왔지만, 오늘날의 農村이나 農民에게는 이 分野에 대한 問題比重이 너무 크고, 體系없는 技術適用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實情임을 看過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좀더 이 問題를 批判的으로 反省하며 말한다면 作物保護課는 除草劑의 技術普及을 위한 實質的 機能이 없었고 또 해 오지 않은 것이 事實이며, 機能發現을 한 것이 있었다면 米產指導課, 田作指導課 및 經濟作物課에서 除草劑 業務를 이끌어 온 것이며, 더욱 實質的인 樣相을 설명하라면 우리나라의 各界에 있는 農藥企業體들이 指導와 普及을 主導하였고 또한 國內의 여러 大學이나 研究機關들의 役割이 의외로 컸었음에 틀림없다. 앞으로 職制가 改編되면 다소 樣相은 달라지겠지만 各道의 振興院에서는 作物指導課와 所得指導課에서 雜草防除에 관한 業務를 맡게 되었고 市郡의 各 指導所의 作物環境係에서는 病害蟲防除와 함께 이 分野業務도 遂行하는 職制가

생기게 되지만, 現在 우리 農村이 當面하고 있는 狀況에서는 이런 程度의 微溫의인 장치만으로 問題受容이 어려울 것이고 보다 積極的이며 專門的인 職制와 人力의 補強에 의해서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現在 우리나라 農村에서의 除草劑 使用은 水稻用과 田作用 모두가 增加趨勢에 있지만 특히 田作用은 急上昇 趨勢에 있다. 雜草의 問題 자체가 논 條件보다는 밭條件에서 크고, 특히 밭의 境遇는 多種多樣的한 作目들이 각각 넓지 않은 面積에서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사철 耕作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雜草防除의 問題도 훨씬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藥種選擇이나 藥效 및 藥害에 대한 問題등이 논에서의 境遇보다 훨씬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現在는 논除草劑가 ha當 2.1kg 전후의 量으로 使用되고 밭은 0.8kg 에 지나지 않으나 앞으로의 양상은 밭쪽에서 急增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農民들로서는 한 차원 높은 다양하고 복잡한 使用技術의 收容이 되어야 하고, 指導員들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專門教育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의 가장 큰 課題인데 現在 農村振興廳 및 傘下機關에는 雜草防除技術普及을 위한 全擔部署나 擔當者 制度가 없는 實情이고, 이것이 곧 오늘의 問題이다. 어떤 체제하에서 農業公務員 教育院과 협조하여 遂行하고 있는 일부 農藥관련의 教育班 운영을 다소 보강하더라도 根源的인 해결에는 못 미칠 것이 예상된다. 더우기 現狀的인 問題 가운데는, 最近 수년 사이에 農村 노동의 高齡化와 부녀자화 現狀을 들 수 있어서 除草劑 使用技術의 收容條件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반면 노임의 騰貴現狀은 이미 深刻한 程度를 넘어서고 있는 實情이다.

뿐만 아니라, 現在 生産現場에서 추진되고 있는

\* 農村振興廳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uwon, Korea

어린묘 재배법은 장차 “못자리 없는 논농사”의 前哨의 技術로서 今年에 이미 15,000 ha를 대상으로 普及되고 있지만 이에 適切히 使用할 除草劑가 마땅히 選擇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에 있다. 일의 時急性에 비추어 볼 때, 이런 分野의 雜草發生樣相이나 雜草競合限界水準 設定 등이 研究되어야 하고, 除草體系가 밝혀진 다음, 妥當性 있는 除草技術이 指導普及되어야 하는데 이들 일련의 技術을 普及할 全擔人力이나 이들에 대한 教育이 너무 미흡한 實情이라 하겠다.

結論적으로 과거의 입장이나 現在의 實情,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雜草防除 및 除草劑 使用技術 요구도로 볼 때, 技術 普及體系는 새롭게 검토되고 再編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問題가 팽배하게 된 연후에 대책을 생각하는 方式으로는 이 分野의 빠른 발전 속도를 收容하지 못할 것이고,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누를 범하게 되거나 또는 이 分野의 발전 자체를 역행시킬 可能性 마저 있기 때문이다.

## 討 論

權容雄(서울大) : 除草劑 使用技術의 普及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役割을 해야 할 農村振興廳 指導局의 입장은 너무 悲觀적인 것으로 들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改善은 앞으로의 問題이고, 우선은 어떤 方法으로 問題를 打開할 것인지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農業公務員 教育院과 협조를 해서라도 우선 當面한 問題들을 現時點에서 해결할 方道는 없는 것입니까?

李相奭(發表者) : 당장은 農村振興廳의 職制改編에 대한 확정지 되지 않아 어떤 部署의 業務로 될지 모르겠으나 이 分野의 業務가 중요한 것에 비추어 무주공산으로 방치될 性質의 것은 아닙니다. 또 振興院이나 指導所의 體系는 이미 조정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專門성이 없고 人力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分野 業務의 機能的 遂行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예를 들어 指導所마다 作物環境係가 있으나 대개는 인원이 3~4명에 불과한데 한명은 係長이기 때문에 分擔業務가 없고, 1~2명은 토양과 비료를 分擔하게 되며, 여기에서 病害蟲의 作物保護豫察擔當을 빼고 나면 아무도 없게 되는 實情입니다.

이와 같은 現狀은, 지금까지도 그래 왔듯이, 振興

廳內的 어느 部署도 全擔하지 않는 동시에 무관하지도 않은 部品の 對象業務로 취급을 하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주인없는 떡”의 격이었던데서 비롯되며, 이대로 둔다면 앞으로도 改善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의 所望으로는, 現時點에서, 各市郡의 擔當人力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씩은 지명해서 專門教育을 시키고, 이런 계획을 2~3년간 反復하면 除草劑 專門班의 役割은 살아날 것으로 보여 建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들 지명된 人力은 作物을 가리지 않고 雜草防除問題나 除草劑問題를 專門적으로 다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梁桓承(全北大) : 앞에서 “묘관 없애는 논농사”라 표현한 것 같은데 벼의 生育次元에서 대단히 좋은 着想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치묘보다 기계이앙묘, 기계이앙묘보다는 成苗가 除草劑 耐성을 갖는 特性이 있는데, 어린묘 除草劑 使用法 개발도 없이 普及하는 것은 너무 性急한 것 같습니다. 除草劑 藥害가 나서 농사를 망치면 누가 責任을 지게 됩니까, '71年度 통일벼의 境遇도 충분한 研究없이 除草劑를 너무 性急하게 普及했던 탓으로 慶北, 忠北, 全南 등지에서 大型藥害事故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方式의 除草劑 普及은 改善되어야 할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相奭(發表者) : 온 세상이 걷는 것보다는 뛰어야 직성이 풀리는 풍조이니, 선생님 말씀이나 憂慮에 충분한 理解가 갑니다. 今年에 약 32,000 農家を 대상으로 15,000 ha에 普及이 됩니다. 이들 農家에는 3회에 걸친 教育을 통하여 어린묘의 mat 形成法과 除草劑 使用法을 핵심 技術로 教育하였고, 지난해의 試驗을 거쳐 Pyrazolate와 만석군을 선발하였는데 今年에는 만석군만 市販이 가능하여 單一處方을 指導普及하였기 때문에 藥害問題는 별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내년 이후 전국 논으로 어린묘 栽培法이 普及될 境遇가 오리라 問題이기 때문에 하루 時急히 이에 대한 研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田泰河(共同發表者) : 저도 이 자리를 빌어 雜草防除와 除草劑에 관련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선 指導士들과의 생활 경험을 토대로 느낀 사항입니다만 農民이나 指導士들이 매 한가지로 除草劑의 特性에 대한 認識이 모자랍니다. 農藥의 중요도를 殺菌劑, 殺蟲劑, 除草劑의 순으로 認識

하고 있어서 除草劑의 使用方式을 習慣的으로 殺菌劑나 殺蟲劑에 따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稀釋濃度의 概念과 面積當 處理量의 概念이 混同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問題가 있어서 하루 時急히 除草劑에

대한 指導士들의 敎育이 이루어져야 새로운 除草劑 問題에 대한 武裝化도 되는 셈일 것입니다. 저도 專門人力 養成에 힘껏 努力하겠습니다.